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7강,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임, 에스겔 14:12-16:63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Dr. Leslie Allen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7회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 14:12-16:63.

우리는 에스겔서 14장 12절을 거쳐 16장까지 계속 연구합니다. 실제로 14:12는 14:12에서 15:8로 이동하면 이 섹션에는 두 개의 하위 섹션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14:12부터 15:8까지가 하나의 하위 섹션이고, 또 다른 긴 섹션이 1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12에서 15:8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으며, 별도의 섹션을 표시하는 공식으로 인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분리된 시작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 엔딩도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23절에 인정 공식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의 변형이다.

그리고 후자의 공식은 15장과 7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 섹션의 전반부에 있는 두 개의 하위 섹션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두 메시지인 14:12부터 15:8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시민들의 운명의 불가피성입니다. 그리고 인정 공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적 개입에 대한 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14장 13절부터 20장까지 논쟁이 제시됩니다. 네 가지 가상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하세요, 그냥 가정하세요, 그냥 가정하세요, 그냥 가정하세요, 네 가지 가상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한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신앙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기근을 보내 사람과 동물을 죽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재한 세 명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14절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인물은 노아와 욥이라는 고대의 두 인물에 비해 여기서 중간 인물 다니엘은 가나안 문헌에서 우리에게 다넬로 알려진 선하고 현명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글썄, 이 사례 연구에서 그들은 좋은 삶, 자신의 삶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삶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없는 나라와 그 운명에 대한 첫 번째 가상 사례입니다. 그 운명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또 다른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죄 많은 나라가 야생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생 동물들은 파괴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럼 어찌지?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야생 동물이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을 상징할 때 중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15장과 16장에는 아들딸, 아들딸을 구원할 수 없다는 통렬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97명의 전쟁 포로를 가리키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경우 관련될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국 그 아들딸들이 연루되어 죽게 될까요? 그들은 죽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쟁 포로가 자신의 자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보장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정 주장의 흥미롭고 신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부터 18까지는 또 다른 가정입니다. 군사적 공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만약의 게임에서도 동일한 시나리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암울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전염병이나 역병인데 19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들딸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주민들의 종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암울합니다. 그런데 21부터 23까지는 메신저 공식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다른 메시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인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치명적인 심판, 즉 칼, 기근, 들짐승과 사람과 동물을 멸하는 심판, 칼, 기근, 들짐승, 전염병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보합니다. 나는 당신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배당하는 아들과 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 그래, 은혜의 트로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결국 그들이 살아남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아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증인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597년의 전쟁 포로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덕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논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던 이 끔찍한 일들에 그들 자신의 아멘을 덧붙이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 전반적인 메시지에는 전쟁 포로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이 다시 한 번 부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운이 좋다면 일부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행복한 재회는 아닐 것이다.

그 아들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불행이 담겨 있을 것이다. 15장에서 우리는 별도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대신, 가정적 주장 대신에 여기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은유가 있습니다.

이는 포도주 양조와 포도나무 재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포도나무를 재배하겠습니까? 글썄요, 당신은 포도를 원했어요. 그러나 포도 수확 후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치기를 조심스럽게 모아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요리와 식사를 위한 연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나무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용도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 위에 올려서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받았지만 가지치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떨감으로 사용될 거예요. 다른 실용적인 용도는 없었지만 불을 피우는 데는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은 그들이 6절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마치 숲의 나무들 중의 포도나무와 같으니 내가 그것을 불에 떨감으로 주어 이 땅의 거민들을 멸절시키리라 예루살렘.

그것들은 내 장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하여 그 목조 건물에 불을 지르면 그들도 갇힐 것이고 그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14:12부터 15:8까지의 이 두 메시지는 13절에서 한 땅이 믿음 없이 행동하여 죄를 지었다는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별도의 메시지에 대해 신중한 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오랫동안 읽혀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이며 아주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은유를 필요로 하고 그것과 함께 도시로 나아갑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실제로 은유가 적용되기 전인 12절에 나옵니다. 16장 2절, 죽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은유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과 관련된 은유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 은유와 해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예루살렘과 그 결점, 멸망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글썄,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12절부터 15장 8절까지는 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땅에 대한 다른 주제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시온 신학에 반대하는 장광설입니다.

시온 신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나 지금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과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성실한 아내가 벌을 받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장이 진행됨에 따라 두 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뉘고 결국 바로 이 장 내에서 조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대부분은 분명히 587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587을 뒤돌아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의 문학적 형식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는 내가 그들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세 도시를 말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87년의 대재난 너머를 내다봅니다.

책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겔의 메시지 중 일부는 이미 587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들은 에스겔이 587년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충으로 다시 넣습니다.

에스겔은 보충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이거나 상대적으로 해피엔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책의 첫 부분에서 자신의 구원의 신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작은 J로 그 판단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종일관 수사적으로 언급됩니다. 당신의 출신, 출생,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것은 수사적 연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반부에서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597명의 포로들입니다. 자, 심판의 신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정당화하는 비난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비난과 다가올 처벌을 연결하는 '그러므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판의 신탁이 그 이상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혹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는 5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확실히 그의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유다 백성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이 비유에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않고, 시들어 먹을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만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난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에, 형벌 전에, 고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그의 보살핌을 아낌없이 베푸셨다고 말하는 추가 구절이 나옵니다.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던 포도원을 가리킨다. 그는 그것이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의 폭탄이 터져 먹을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의적인 서문이 있어서 비난에 이르게 되면, 비유를 넘어서 생각하면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서 자신이 원하는 언약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훨씬 더 잘 알려진 또 다른 사례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형벌을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곳은 보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서 그에게 불순종했다는 사실에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16장에서 세 번째 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누더기에서 부자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야생에 노출된 원치 않는 여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형편없는 혈통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느니라. 네 근본과 출생은 가나안 땅에서 났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늦게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다윗 시대에였습니다.

그 전에는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지였으므로 이교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멋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교도 기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을 흥분시켰어요.

예루살렘에는 나쁜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어떤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교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원죄와 같아서 어느 시점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글쎄요, 이 여자 아기는 출생 직후, 조산사가 아기에게 일반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기 전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 지나가시게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성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은 그녀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으로서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옷과 보석, 영양분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역사적으로 그녀의 여왕임은 왕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행복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쾌한 일로 변할 것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34에서는 이제 고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성적으로 불충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야훼의 아내는 색정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2장까지의 이 시점에서 이 은유 뒤에 숨은 현실은 종교적 불신실함과 예루살렘이 살았던 방식에 이교 숭배가 유입되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채택되었습니다. 자녀를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졌습니다.

그의 선물은 그녀의 새로운 연인인 다른 신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서 종교적 불신이 있습니다. 23~34장에서 성적 불성실함은 다른 나라들, 즉 이집트, 앗시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갈대아 또는 바빌로니아와의 정치적 얽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행정 중심지로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들이 있던 곳이고, 정부가 본거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루살렘의 잘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교 정책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만행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특히 이사야는 외국과의 동맹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실한 아내의 비유는 정치적으로 최근 정치적 개입이 다른 강대국을 야훼 대신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아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26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받습니다. 네가 음란한 이웃 애굽 사람과 행음하여 네 음행을 심히 행하여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은 패자로 변했고, 제국 파트너들에게 바치는 공물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5년부터 43년 전반까지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게 닥칠 비난에서 처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비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정치적 불성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불성실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사랑하는 정치적 연인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간음에 대한 하느님의 판결을 집행할 것이었습니다. 문란한 아내는 죽어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희생과 관련된 종교적 불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들, 이 외국인 연인들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옷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43a-43b를 넘어 58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새로운 것으로, 보다 긍정적인, 다른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부끄러운 나쁜 일들에 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53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진술로 드러납니다. 나는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사마리아와 유다를 가리킨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관련성이 높은 53b를 말하고 있으며, 나는 그들의 재산과 함께 당신의 재산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사악한 도시인 소돔과 사마리아 옆에 이상한 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재산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587 너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거의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경고로서 부정적인 내용의 여지를 찾는 것은 에스겔의 긍정적인 신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587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유배자들이 597년의 전쟁 포로들과 합류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더욱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징적으로 약속과 도전을 혼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작은 j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유배자들은 불성실의 역사로 인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다닐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고통의 감정적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비극을 보장했던 587년 이전에 범해진 죄를 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상처, 그 심리적 상처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역사의 이면에 깔린 나쁜 행위의 역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반복되는 후렴구가 포함된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중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메시지가 주는 느낌이 매우 큼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다시는 똑같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수치심과 후회의 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한때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 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합니다(디모데전서 1:5).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과분한 은혜의 느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명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과거에 나쁜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나타나는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에는 이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유다에는 평판이 나쁜 두 도시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두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예루살렘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너는 어때? 당신은 어떤가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을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자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못생긴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은 신앙을 부인하고 이교 신앙을 받아들인 가장 추악한 곳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 최악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58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은 59장부터 6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장의 후기입니다. 되돌아보면 일반화된 요약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른 유사한 추신도 있습니다. 내 논평에서 나는 이 포스트스크립트가 나중에 유배 기간 중에 편집자들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편집자들이 영감을 받아 에스겔 자신의 말에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스크립트는 귀환한 유배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비참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의무감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일에 참여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의 원래 결혼 계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갱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옛 시온의 전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예시로서 포로들은 돌아온 후에 유다로 돌아갈 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의 영토도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옛 영국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들 테러리스트들이 포함된 약속의 땅의 수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바울이 쓴 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데 지금은 1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장 5절에서 말했듯이 가장 악한 죄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죄가 넘쳤고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려는 동일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장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입니다.

요약하자면, 에스겔 16장은 읽기에 좋은 장이 아닙니다. 불안한 장입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웠다면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영어 버전은 톤을 낮췄습니다. 페니스는 더 이상 영어 버전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텍스트에는 있습니다.

이 장은 현대 독자들에게 확실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장은 호세아의 첫 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상징적인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결혼은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는 호세아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대한 회상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유로서 훨씬 더 발전되었지만 그것의 뿌리는 호세아의 가르침, 즉 북쪽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은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기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은유의 중심이 된 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고 평생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87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속적인 강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끝.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땅도 더 이상 없고, 왕정도 더 이상 없고, 성전도 더 이상 없고, 예루살렘이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다시 이 은유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격려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도시는 항상 여성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여성적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결혼 상대자, 야훼의 아내로 삼는 것은 언어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오래 전부터 여부스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비이스라엘 기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유의 정교함에 적합하고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형벌에 관한 한 토라,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서 간음은 극형에 해당하므로 예루살렘에 대해 이 끔찍한 형벌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 법적 관습, 이 성직자의 관습은 그것이 발전하면서 은유로 자리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장에 끔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 전체를 좋아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저속하게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가 여기저기에 흐르고 있으며 확실히 좋지 않으며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것은 그 자체의 상황에서 필연적인 노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배자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로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읽었던 시편 46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온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교 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 그는 다른 전통과 관습을 사용하고, 또한 충격적인 언어, 노골적으로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져야만 했다는 것을 전쟁 포로들에게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그 몰락은 신성한 불가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관해 말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만큼 수줍어했고, 이것이 에스겔의 언어를 더욱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관적인 전쟁 포로들에게 충격을 주고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시키려는 수사적 술책입니다.

그는 그들의 귀를 사로잡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낙관주의가 너무 완고해서 깨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과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Dr. Leslie Allen과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7회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 14:12-16:63.